

1인가구의 교통부문 가구소비지출 특성

고두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·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



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인가구 비율은 27.2%로 2005년 20.0% 대비 7.2%p 증가하였다.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1인가구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과 상품 등이 생겨나고 있고, '1코노미', '혼밥', '혼술' 등의 신조어도 사용되고 있다. 이번 재미있는 통계이야기에서는 1인가구의 교통부문 가구소비지출에 대한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, 교통측면에서 1인가구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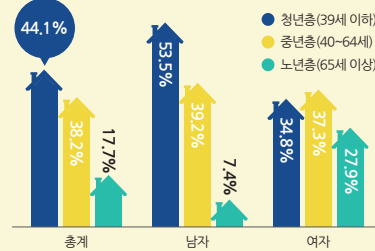
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

1 지역별 1인가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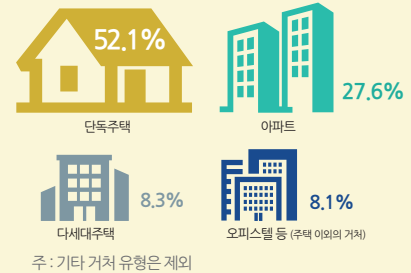
- 2015년 기준 520만 가구



2 연령대별·성별 1인가구 현황



3 1인가구 거처의 종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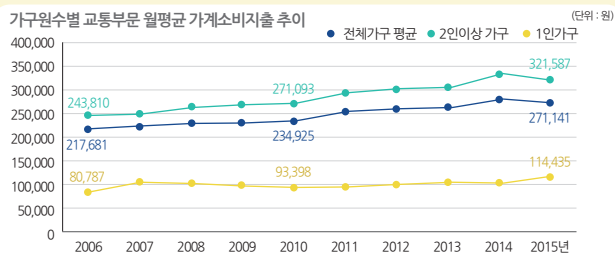
자료: 인구주택총조사, 통계청

1인가구의 가구소비지출 특성

자료: 가계동향조사, 통계청 주: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(전국 1인 이상, 명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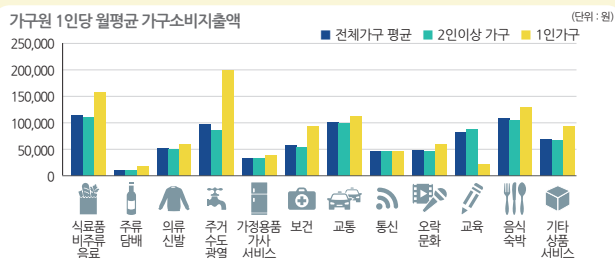
1 교통부문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추이

-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모든 가구가 감소하였으나, 1인가구는 12.3% 증가하였음.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가구 평균 2.5%이며, 1인가구 3.9%, 2인 이상 가구 3.1%로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0.8%p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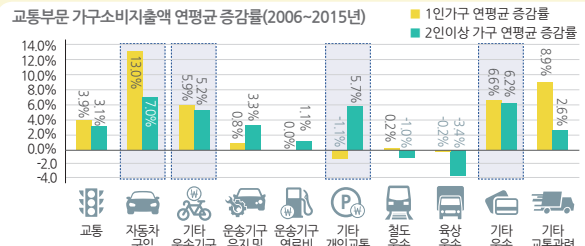
2 지출 항목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현황

- 2015년 기준 가구원 1인당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은 1인가구가 교육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. 그 중 주거 관련 소비지출이 가장 큰 차이를 보임. 1인가구 교통부문 월평균 소비지출은 2인 이상 가구 1인당 대비 월 12,988원 정도 더 소비함



주: 가구원 1인당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 = 가구 소비지출액 / 평균 가구원수

- 최근 10년간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교통부문 항목별 가구소비지출액 연평균 증감률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자동차 구입, 택배 등의 교통, 운송서비스의 소비지출이 많이 증가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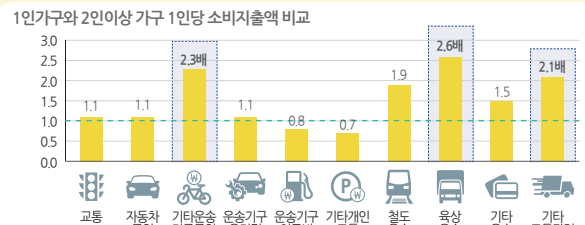
*기타 교통관련 서비스: 화물운송 및 보관을 위해 이용하는 이사, 일반화물, 택배, 이륜차를 이용한 빠른 운송서비스 등

*기타개인교통서비스: 운전교습비, 주차비, 통행료 등

*기타운송: 항공, 여객선 및 혼합교통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뜻하며, 교통카드에 적용도 해당

*철도/육상운송: 기차, 지하철/시내버스, 시외버스, 택시 이용에 따른 운송

- 가구원 1인당 교통부문 소비지출액 산출비교결과, 기타운송기구구입과 육상운송, 기타교통관련서비스 부문 지출액이 1인가구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이는 1인가구의 생활, 소비 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



주: 1인 이상 가구 1인당 소비지출액 = 2인 이상 가구 소비지출액 / 2인 이상 가구 평균 가구원수

주2: 기타 운송기구: 오토바이, 자전거 등 승용차 이외에 사람의 이동 및 화물운송 등에 필요한 기구

1인가구 시대 교통부문 소비에 대한 해석

- 최근 10년간 1인가구 가구소비지출에 대한 분석결과 1인가구의 자동차구입,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. 1인가구의 자동차구입 증가는 나홀로 차량운행으로 승용차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. 따라서 1인가구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, 승용차구입 소비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. 승용차 구입을 망설이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는 카셰어링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. 또한, 이사, 택배 등 운송 및 보관서비스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 맞춤형 운송서비스(무인 택배함 확충, 공동 배송 체계 등) 제공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.
- 또한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오토바이, 자전거 등 1인 교통수단 구입, 육상운송, 화물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서비스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. 최근 전기동력을 이용한 '퍼스널 모빌리티'가 1인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. 1인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교통수단의 동반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법규 신설, 시설투자, 안전기준 마련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.